

APEC 자동차대화, 지능형·친환경 미래차 기술·정책 논의 이어간다

- 2025 APEC 제42차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8.1~2일) 송도에서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이하 AD)가 오는 8월 1일(금)부터 2일(토)까지 송도 컨벤시아(Songdo ConvensiA)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민·관협의체로 각 경제체 자동차 산업 현황·정책 등 논의

AD는 1999년부터 시작된 공식 민관 협의체로, APEC 역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이슈와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회원의 정부와 산업계가 참석하며, 상반기 회의(제41차 AD, 5.8~9일, 제주ICC)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의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전망,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전략,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의 사회적 영향, 미래 모빌리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논의되며, 우리나라는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수소경제 모빌리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기술 및 정책 이슈를 발표한다.

앞서 7월 31일에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 모빌리티 실현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문가 중심 AD워크숍을 열어, APEC 회원들 간 미래차 기술협력 및 정책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들은 미래차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320)
	자동차과	담당자	사무관	채기천 (044-203-4327)

□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개요

- (일시 및 장소) 7.31(목)~8.1(토),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홀A(2층)
- (의장) 산업부와 자동차협회가 공동의장직* 수행
 - * 정부 :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 민간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 (참가국) 대면한국, 미국, 중국, 일본, 페루,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비대면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필리핀, 홍콩
- (주요 의제) ①글로벌 자동차 시장동향 및 전망, ②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 ③자동차 분야 무역 및 투자촉진 방안, ④자율주행·인공지능·로보틱스: 미래기술과 사회적 영향, ⑤모빌리티 분야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등
 - (발표 의제) ①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솔루션, ②전기차 시장정책 동향 및 보급 활성화 방안, ③커넥티드카 및 SDV 통신 서비스 기술 고도화, ④전동화 전환에 따른 전략적 기회요인 및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⑤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 자동차대화 워크숍(AD Workshop) 개요

- (주제) Driving Innovation: Technologies for Human Centric Mobility
- (목적)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기술혁신, 기술협력 강화
- (일시 및 장소) 7.31(목) 9:00~15:30, 송도 컨벤시아 115호
- (세부주제) ①이동 접근성 확대를 위한 포용적 미래 모빌리티 전략, ②외부효과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이동기술과 인프라, ③풍부한 이동경험과 공간가치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 모빌리티 개발